

## 조선대 법인 이사장 판공비, 법인 카드 불법 사용 '의혹' 증폭

### 사용내역 공개요구 묵묵부답, 해명요구한 이사 새 이사진 탈락 대학측, 글로컬 대학 선정 앞두고 법인의 비리로 영향 우려 잦은 학사개입으로 교육부서 수차례 경고 및 주의 받아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이사장 선출을 앞두고 현 김이수이사장의 판공비와 법인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내년에 취임할 이사들의 잦은 학사개입으로 교육부에서 수차례 경고와 주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새로운 이사장 선출과 이사들 선임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이문수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이사는 이와관련 지난 2018년 2월 8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 이사장 판공비지급내역과 법인소유 법인카드 4개 사용내역서 및 이사장 차량운행일지를 포함한 출근 기록에 대한 공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번번히 무산됐다는 것.

이후 이이사는 법인이사회 회의 과정에서 요구가 묵살되자 학교법

인에 2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법인측은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질 우려가 있다”는 공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이사의 법인 비리에 대한 고발과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 5월25일에는 제4기 정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 9명 중 과반수득표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탈락시키기도 했다.

조선대 법인이사의 경우 설립자측 3명, 교육부 선임 2명, 학교측 1명, 개방이사 3명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도 문재인정부에서 유은혜교육부 장관이 규정을 무시하고 4명을 선임하는 바람에 설립자측 몫으로 유일하게 이문수가 사만 선임돼 그동안 법인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의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숫적인 열세로 번번히 제지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4기 이사장과 이사선임을 앞두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조선대 이사진 구성이 과거 운동권이 독식하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학교측과 지역사회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현 정부에서 이에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이문수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이사는 “이사장의 판공비와 카드사용내역 공개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니라 등기이사의 자격으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데도 나머지 8명의 이사들끼리 단합해서 번번히 무산 시켰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 이런 불법적인 사태를 묵인한 채 이사장과 이사들을 재 선임한다면 조선대는



또다시 분란과 혼란의 학사운영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이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학교를 장악하기 위해 번번히 학사 개입을 하며 현 총장을 비롯한 학교측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어 학사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조선대학교는 6월 교육부에서 글로컬(Glocal)대학 지정을 앞두고 있어 자칫 법인의 과도한 행위로 인해 무산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수평의회 김모교수는 “학교법인이 최근들어 지나치게 학사운영에 관여하면서 과거 혼란스럽던 시

절로 되돌아 간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면서 “교육부에서 1년에 200억씩 5년간을 지원하는 중차대한 사업을 앞두고 학교와 법인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조선대가 또다시 위기를 겪고있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이사장과 이사진들의 자중을 요구했다. /특별취재팀

## 광주시, '도시 재생과 지역공동체 형성' 세미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8일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도시 재생과 지역공동체 형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역공동체발전학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분석·공유해 구도심의 지역공동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는 문영훈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학계, 도시재생분야 전문가, 각 자치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공무원,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미나는 광주시의 '도시재생 추진 성과' 발표에 이어 '동구의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하고, 백진 서울대 교수의 '도시공간구조와 삶의 방식의 혁신', 조정형 부경대 교수의 '도시재생과 공존하는 지역 공동체 운영'에 대한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귀곤 사단법인 지역공동체발전학회(서울대 명예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지역 공동체형

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비전과 원칙, 접근 방법은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에 따라 변화했다”며 “광주 동구 재생사업의 사례와 국내외 우수 사례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향한 길을 모색해 지역공동체의 발전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중 광주시 도시활성화팀장은 '도시재생 추진 성과보고'에서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 현황과 함께 ▲푸른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도심 재생 ▲동명마을 ▲창작농성골 ▲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도심 상권활성화로(路), 사람중심 행복도시로(路) ▲살고싶은 양림마을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행복공간, 버드 리 야구마을 ▲문화역세권 1913송정 ▲월곡 고려인 마을 등 10곳의 대표적 자치구 도시재생사업을 소개했다.

이 팀장은 “이를 통해 주요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생활환경 개선, 주민참여형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도시 공간을 창조적 변화로 이끌어 생기있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성룡 광주시 동구 도시관리국장도 동구 도시재생 사례에서 “충장동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부터 동명동·서남동·산수동·계림동 등 사업으로 공동체·문화적·경제적 재생을 목표로 참여와 소통의 도시공동체 형성, 문화적 삶의 향유, 주민경제 활성화를 이뤘다”면서 “앞으로 로컬브랜딩과 지역특화 재생으로 동구다움 도시를 가꿔가겠다”고 설명했다.

백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재생의 지향점은 필요와 수요에 대한 단계적 대응도 실행해야 하지만 지속가능한 삶의 열망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응

을 실행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지향점”이라면서 “도시공간 구조와 삶의 방식의 혁신, 도시재생의 근본적 지향점을 재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한 사례에 대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형 국립부경대 공업디자인전공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광주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 현주소와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를 들여다보고, 광주 구도심이 인구감소와 빈집 등으로 공동화돼 가는 상황에 공존의 도시재생사업 전환시기를 강조하고 새로운 민·관·학이 함께하는 기업형 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문수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맨 파워

나이가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